

“안전한 서해바다 만들기 최선 다하겠다”

정봉훈 신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투철한 사명감으로 임무 수행...해상치안 확보 주력 해·공 합동 불법 조업 어선 나포 등 해양주권 수호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상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봉훈(57) 차안감이 최근 제13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정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해바다에서 거친 파도와 싸우며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의경 여러분과 묵묵히 뒷받침하고 있는 가족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양경찰은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민들이 안

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완벽한 해상치안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항공순찰과 위성자료 등 정보 분석을 통해 전략적 경비체계를 운용하고 해·공 합동 작전을 통해 무허가·영해침범 등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하는 등 해양주권을 완벽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새해에는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해양경찰의 역할이 확대되고 국민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3천여 서해해



경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민과 유관기관, 민간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역량을 발휘하는 해양경찰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정 청장은 “코로나19 시대에 해양경찰이라는 국가공무원 신분임을 더욱 자각해야 한다”며 “국가를 위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국민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항상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 감염병 확산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정 청장은 조직 내 소통·화합을 강조하고 직원 간에 칭찬하고 동기를 부여해 조직 역량을 극대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청장은 “칭찬은 무죄도 복인이다”고 했는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근무할 때 일의 능률도 더욱 극대화 될 것”이라며 “업무 효과를 최대로 이끄는 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다는 거칠고 변화무쌍한 만큼 어떤 난관도 극복한다는 도전정신과 유연한 사고, 미래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없다면 바다는 거친 황무지에 불과할 것”이라며 “재미 기간동안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안전한 서해바다를 만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수 출신인 정 청장은 간부후보 42기로 해양경찰에 입문해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울산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역임했다. /목표=정선기자

조원일 전남대 교수 제16대 한국중국어문화학회장 선임



전남대학교 조원일 교수(국제학부 중국학전공)가 한국중국어문화학회 신임회장으로 선임됐다.

조 교수는 '2020 한국중국어문화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제16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조 신임 회장은 대만 중국문화대학 대학원에서 문학석사 학위를, 중국 북경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한 뒤 전남대 교수로 취임해 언어교육원장(여수), 문화사회과학대학 부학장, 전남대 교수회 부회장, 교학기획부처장 등을 역임했다. /최권범기자

지스트 학사과정 윤예지씨 美 SCI급 저널 제1저자 등재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윤예지 학생(기계공학전공 4년)이 제1저자로 참여한 연구 논문이 미국 물리학회가 발간하는 SCI급 과학저널인 '유체 물리학(Physics of Fluids)'에 게재됐다.

윤씨는 지난 2019년 3학년 재학 당시 지스트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인 'GIST 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G-SURF)'을 통해 연구에 대한 흥미를 가졌고, 2020년에는 '학사논문 연구'를 수강하며, 움직이는 물체 주변의 복잡한 유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발전시켜 SCI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윤씨는 “G-SURF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생도 연구과정에 대해 압축적으로 배울 수 있고, 연구실 생활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광주대 김도연씨, 광주시장 표창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 한국어교육과 김도연(4년)씨가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김씨는 2020년도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하며,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역을 제안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씨는 또 광주시 유해 환경감시단 소속으로 청소년 지킴이 활동을 펼쳐나가며 불법 광고물 철거 및 고발, 캠페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결과 지난 8월 광주 서구청장 표창과 지난 12월 학교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김씨는 광주대에서 지난 2017년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석사를 졸업한 뒤 사회복지와 범죄 피해자 지원 활동을 위해 광주대 사회복지학과 편입했다. 심리학과 졸업 후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지원 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에 입학해 학업을 이어왔다.

김씨는 “광주시민과 광주대 학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봉사와 캠페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고 싶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면, 분명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서 사회가 성장해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광주여대 윤정원 팀장, 광주시장 표창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평생교육원 윤정원 팀장이 지역 평생교육 발전에 힘써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건설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용섭 광주시장으로부터 표창패를 받았다.

윤 팀장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으로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

더불어,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의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사회 양극화와 평생교육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최권범기자

결혼

●이정록(전남대 교수)·박영숙씨 장남 장현군, 배종석·서경숙씨 장녀 지후양=16일(토) 오후 2시 20분 광주 서구 라페스타 4층 디아망홀.

부음

●박운정씨 별세, 김명환(KIA타이거즈 투수) 외 조부상=발인 11일(월) 오전 명지병원 장례식장 2호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서로 14번길 55). 031-810-5444.



광주교육상 수상자들, 상금 전액 지역 결식학생 후원

제34회 광주교육상 수상자인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장영신 전 교육장,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양정기 원장, 광주서교육청 나중훈 전 행정국장이 상금 전액(각각 273만원)을 세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 지정기탁했다.

광주교육상 수상자 전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부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세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 기탁하

기로 결심했다.

기탁된 상금은 관내 고등학교 3학년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 식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장영신 전 교육장은 교장공모제 확대 등 인사제도 혁신에 기여한 공로로, 양정기 원장은 미래 인재 양성 및 학교 민주주의 실천에 이바지한 공로로, 나중훈 전 행정국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대외협력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제34회 광주교육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권범기자

故 김기태 도의원 영결식 '전남도의회장' 엄수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故 김기태(향년 67세) 전남도의회 의원의 영결식이 10일 오전 순천 낙안읍성 주자장에서 전남도의회장(葬)으로 엄수히 거행됐다.

이날 영결식은 유가족·친지와 김한중 의장을 비롯한 동료 도의원, 김영록 도지사, 김승남·소병철·김희재 국회의원 등 9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인의 발자취 소개와 조사·추도사에 이어 헌화·분향 순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조사를 통해 “故 김기태 의원은 평생 올곧은 신념으로 흐트러짐 없는 삶을 살아왔다. 성실과 열정으로 의욕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고인께서 보여주신 고귀한 인품과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가슴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한편, 故 김기태 의원은 제10대 전남도의회에 입성해 기획사회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도목 전문가인 전문성을 활용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전남 도정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선도적인 발자취를 남겼다. /임후성기자

광주여성가족재단, 영아일시보호소 후원물품 전달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미경)이 지난 7일 지역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후원물품은 영유아들이 겨울철과 환절기에 목에 돌려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스키프립과 영유아 돌봄에 활용하기 좋은 핸드타올이다.

김 대표이사는 “재단의 따뜻한 마음이 광주영아일시보호소의 아동들에게 전달되면 좋겠고 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입원아동돌봄서비스 등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정책안내 사업이 영아일시보호소에서도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20년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삶을 총체적으로 지원해 초저출산 문



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키움지원단을 신설했으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를 위한 정보플랫폼 '광주아이키움'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김다이지

박광철 광주현대병원 응급의학과 원장 '구급지도의사' 위촉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 8일 광주현대병원 응급의학과 박광철 원장을 구급 지도 의사로 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구급지도의사 위촉'은 병원 전 단계의 119구급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와 구급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박 원장은 2013년 1월 북부소방서 구급지도의사로 최초 위촉됐으며, 이번 연임위촉을 통해 2023년 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박 원장은 앞으로 현장 이송 단계 구급대원 응급처치 평가 및 자문, 구급활동 품질관리,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구급의료장비 및 응급처치



약품 등에 대한 교육 및 자문 등의 업무를 맡는다. /김동수기자



박승현 영진건설 회장 부부, 전남대 발전기금 쾌척

영진건설 박승현 회장 부부가 모교인 전남대학교에 2억5천만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이들 부부가 전남대에 기부한 금액은 모두 10억원에 이르게 됐다.

전남대 재학시절 같은 동아리 회원이자, 공과대학 캠퍼스 커플이었던 영진종합건설 박승현 회장(건축공학 70학번)과 김영 영진산업 대표이사(전남대 화학공학 72학번)는 지난 7일 정병석 총장을 예방하고, 대학발전기금으로 2억5천만원을 기탁했다.

김영 대표이사는 “정병석 총장과 보직 교수님들의 열정으로 모교가 크게 발전한 것 같아 기쁘다”며 “미약하지만 후배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인프라 구축에 의미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승현 회장은 “사업을 시작한 지 40년째인 지금까지 나눔을 소명으로 삼아왔는데, 모교에 10억 원을 기부하겠다는 목표를 비로소 이루게 됐다”며 “앞으로 더 많은 동문과 지역기업인들이 전남대가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부 대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현재 전남대총동창회 회장이기도 하다.

정병석 총장은 “이미 여러 면에서 모교에 대한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오셨는데 거액의 발전기금까지 기부해 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며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발전기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영광청소년복지센터 조미라·박은정 상담사 전남지사 표창

영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진선) 박은정·조미라 상담사가 전남도 '2020년 청소년 육성 유공자' 부문 전남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박은정(청소년동반자)·조미라 상담사(학교폭력원스톱지원 상담사)는 한국모래놀이치료학회 모래놀이상담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입사 이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모래놀이치료실을 구축하고 모래놀이치료 활성화

에 기여했다.

박은정 상담사는 “상담사로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하며 좀 더 청소년의 마음을 살피고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상담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조미라 상담사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 표창을 받게 돼 큰 용기와 힘을 얻었다”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기자

(주)블루밍은, 한부모 가정시설 나눔프로젝트 '훈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블루밍은은 최근 광주 광산구의 한부모 가정시설인 '우리집'에 소중한 마음을 전달했다.

한부모 가정시설인 '우리집'과 상호 협력 협약(MOU)을 체결하고, 미혼모 및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실무 디자인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주)블루밍은은 자체 제작 상품인 '미아방지 가방'을 우리집에 거주하는 미혼모 20가구에 기부했다.

미아방지 가방은 온라인으로도 판매되고 있으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면 99명의 취약계층에게 선물되는 '온나나(Only Ninety Nine)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이 되고 있다. (주)블루밍은은 현재 가방, 스트랩, 핸드메이드 제품인 패브릭 소재의 다양한 리빙 제품군을 운



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수익으로 나눔기획 프로젝트와 '물품 후원'을 진행하고 있다.

(주)블루밍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지친 일상이 지속되다보니 소중한 마음을 이렇게라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뿌듯하다”며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고훈석기자